



2012년 11월 9일

# 투자전략 Daily

-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 기술적분석 | 김철중 ☎ 3276-6247
- 계량/파생 | 안    혁 ☎ 3276-6272
-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 크레딧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CHART OF THE WEEK: 재정절벽, 약한 리더십

• 이머징마켓 동향

재정절벽 이슈 및 성장둔화 우려로 급락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엠케이전자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삼영이엔씨 외 5종목

• 산업/기업분석

미디어광고, 엔씨소프트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1/01(목)	11/02(금)	11/05(월)	11/06(화)	11/07(수)	11/08(목)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898.44	1,918.72	1,908.22	1,928.17	1,937.55	1,914.41	
	등락폭	-13.62	20.28	-10.50	19.95	9.38	-23.14	
	등락종목	상승(상한)	308(6)	520(7)	373(8)	496(4)	410(4)	270(11)
		하락(하한)	506(4)	309(4)	447(2)	335(3)	401(3)	534(1)
	ADR	79.50	80.50	82.07	83.26	87.20	85.84	
	이격도	10 일	99.17	100.36	99.98	101.02	101.39	100.23
		20 일	98.12	99.37	99.01	100.18	100.69	99.54
	투자심리	40	50	50	60	70	60	
	거래량 (백만 주)	396	441	337	540	550	654	
	거래대금 (십억 원)	5,177	5,580	4,538	4,501	4,580	5,304	
코스닥	코스닥지수	508.83	513.37	515.14	517.53	518.45	519.04	
	등락폭	0.52	4.54	1.77	2.39	0.92	0.59	
	등락종목	상승(상한)	378(7)	589(8)	478(8)	481(10)	459(12)	382(4)
		하락(하한)	534(2)	341(2)	439(1)	440(3)	464(2)	536(4)
	ADR	80.43	81.33	82.24	81.67	84.50	83.45	
	이격도	10 일	99.22	100.21	100.71	101.31	101.61	101.71
		20 일	97.36	98.44	98.99	99.67	99.99	100.26
	투자심리	70	60	70	70	70	80	
	거래량 (백만 주)	399	445	382	459	455	455	
	거래대금 (십억 원)	1,796	1,776	1,697	2,113	1,830	1,778	

##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927.2	1,204.2	1,144.0	266.8	104.6	214.5	73.3	53.9	227.9	60.2
	매도	2,526.5	1,322.6	1,444.2	233.6	130.1	304.0	104.6	31.2	219.7	42.3
	순매수	<b>400.7</b>	<b>-118.5</b>	<b>-300.2</b>	<b>33.2</b>	<b>-25.5</b>	<b>-89.5</b>	<b>-31.3</b>	<b>22.7</b>	<b>8.3</b>	<b>17.9</b>
	11 월 누계	<b>164.3</b>	<b>306.7</b>	<b>-160.2</b>	<b>215.8</b>	<b>21.3</b>	<b>-75.8</b>	<b>-13.3</b>	<b>6.6</b>	<b>190.6</b>	<b>-310.8</b>
	12 년 누계	-10,912.9	13,984.6	1,895.3	1,799.6	2,583.7	-5,168.7	-34.6	424.4	2,431.1	-4,967.0
코스닥	매수	1,599.9	63.1	115.0	25.8	14.7	35.7	5.5	8.5	23.3	14.4
	매도	1,616.1	75.1	79.2	15.9	13.8	25.7	5.1	3.9	12.3	21.9
	순매수	<b>-16.3</b>	<b>-12.0</b>	<b>35.8</b>	<b>10.0</b>	<b>1.0</b>	<b>10.0</b>	<b>0.4</b>	<b>4.6</b>	<b>11.0</b>	<b>-7.5</b>
	11 월 누계	<b>17.5</b>	<b>-61.1</b>	<b>76.7</b>	<b>42.6</b>	<b>-3.4</b>	<b>18.3</b>	<b>-9.9</b>	<b>5.6</b>	<b>20.6</b>	<b>-33.1</b>
	12 년 누계	1,110.2	53.3	-416.0	94.9	77.6	-596.0	-205.1	-32.7	242.3	-747.5

## CHART OF THE WEEK: 재정절벽, 약한 리더십

11월 월간 밴드	1,870-2,030pt
2012년 하반기 밴드	1,750-2,100pt
12MF PER	9.1배
12MF PBR	1.03배
Yield Gap	8.2%P

- ▶ BoA, 애플 등 미국 주가는 오바마 대통령 재선 이후 하락세 나타남
- ▶ 오바마 대통령 재선은 QE3 등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지속성을 담보하는 요인임
- ▶ 다만 양극화된 여론으로 재정절벽 불확실성 지속되는 경우 미국 기업투자 회복은 지연될 전망

### ■ 애플, 아이패드 미니 판매호조에도 주가는 하락한다

삼성전자는 태블릿PC시장에서 안드로이드 태블릿PC를 무기로 시장점유율을 11년 3분기 7%에서 12년 3분기 18%로 끌어올렸다. 또 10월 26일에는 윈도우8 태블릿PC인 아티브 스마트 PC를 출시했다.

애플의 빠른 신제품 출시로 경쟁과열되고 있음

애플은 태블릿PC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11년 3분기 60%에서 12년 3분기 50%로 하락했다. 이에 시장점유율 회복을 위해 통상적인 신제품 발매주기(4월)보다 6개월 빠른 10월에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4세대를 공격적으로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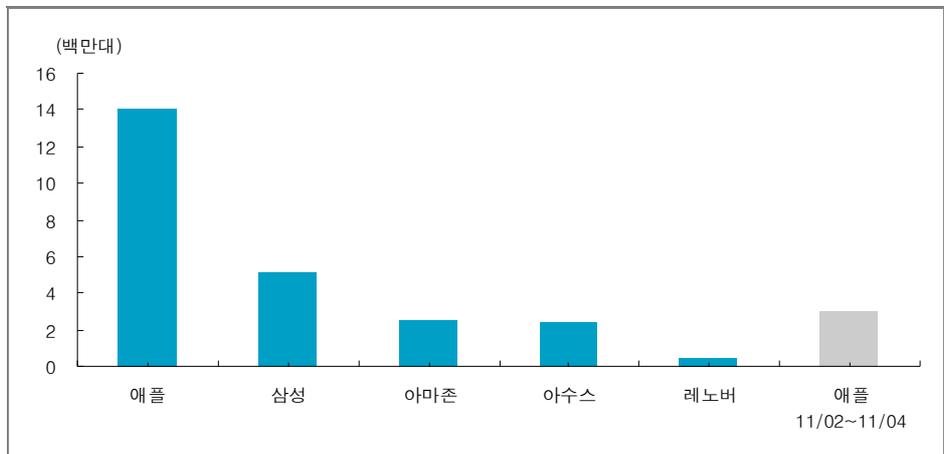
<표 1> 브랜드별 태블릿PC 판매대수

(단위: 백만대)

브랜드	12/3Q 출하대수	시장점유율	11/3Q 출하대수	시장점유율
애플	14.0	50%	11.1	60%
삼성	5.1	18%	1.2	7%
아마존	2.5	9%		
아수스	2.4	9%	0.7	4%
레노버	0.4	1%	0.2	1%
기타	3.3	12%	5.4	29%
총계	27.8	100%	18.6	100%

자료: IDC, 한국투자증권

[그림 1] 12년 3분기 태블릿PC 판매량, 애플 아이패드 신제품 판매량(11/02~04) 비교



자료: 한국투자증권

애플 아이패드미니, 4세대 출시 후 3일간의 판매량이 아마존 태블릿PC 3분기 판매량을 상회함

애플의 신제품 출시에 힘입어 애플의 태블릿PC 시장점유율은 4분기 반등할 전망이다. 11월 2일 출시 후 3일 동안 애플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4세대는 무려 300만대가 판매되었다. 3일 판매량 판매량 300만대는 아마존 태블릿PC 3개월 판매량 250만대를 상회한다.

애플 아이폰5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애플의 태블릿PC 시장점유율 반등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 주식 투자자는 매출총이익률이 20% 초반인 태블릿PC의 판매호조보다 매출총이익률 50%를 상회하는 아이폰5의 생산차질, 판매둔화에 따른 매출총이익률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 애플은 매출총이익률이 낮은 아이패드미니와 매출총이익률이 높은 아이폰5간의 간섭효과(자기시장잠식, Cannibalization)을 줄이기 위해 아이패드미니 화면크기를 충분히 큰 7.9인치로 결정했다. 아이폰의 높은 매출총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림 2] 애플 주가 주봉, MACD 다이버전스

애플 주봉 약세 신호 - MACD 다이버전스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애플 아이패드 미니와 아이패드 2세대, 4세대

아이패드 미니 7.9인치로 경쟁 태블릿 7인치보다 크다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불확실성에 기업투자가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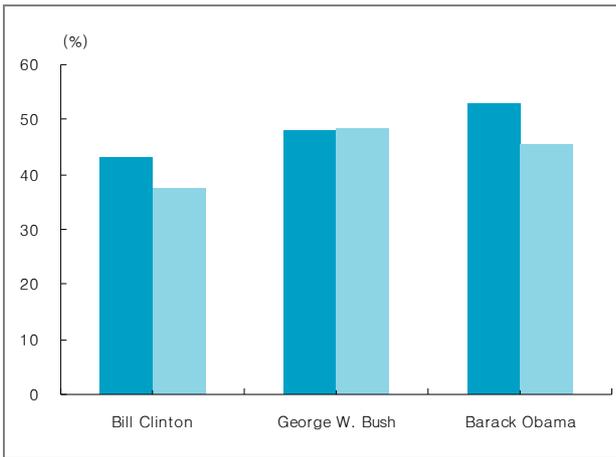
애플 주가 하락에는 애플 자체 기업이슈 뿐 아니라 미국 대선 이후의 불확실성도 반영되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은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지속성, 안정성 등 긍정적이지만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재정절벽, 증세 등으로 인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양극화된 여론으로 인해  
재정절벽 조기 해결이  
불확실한 상황

양극화된 미국 여론으로 인해 재정절벽, 증세 등 재정정책이슈가 신속하게 해결되기 어렵다. 빌 클린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경우 초선보다 재선에서 2위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커졌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보다 양극화된 여론으로 인해 2위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초선 7.2%에서 재선 2.3%로 축소되었다. 이는 4년만에 약화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기반을 드러내고 있다. 지지기반이 약화된만큼 재정절벽에 대한 민주당, 공화당 간의 조기합의 가능성이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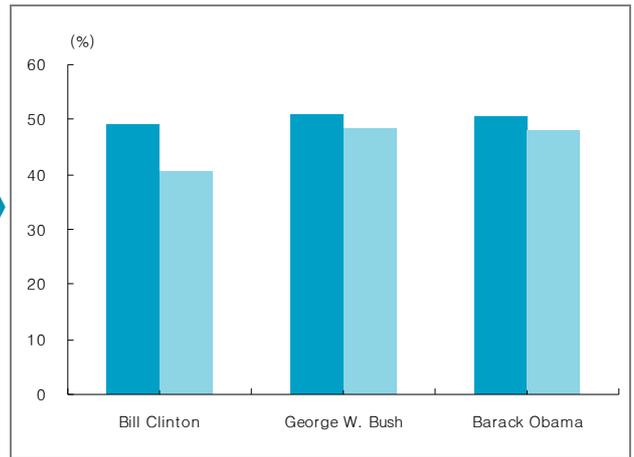
다만 2011년 8월 미국 신용등급 하락을 이끌었던 극우파 티파티의 인기가 하락했기에 극단적인 정치적 파국은 피할 전망이다.

[그림 3] 미 대통령 초선 지지율 격차



자료: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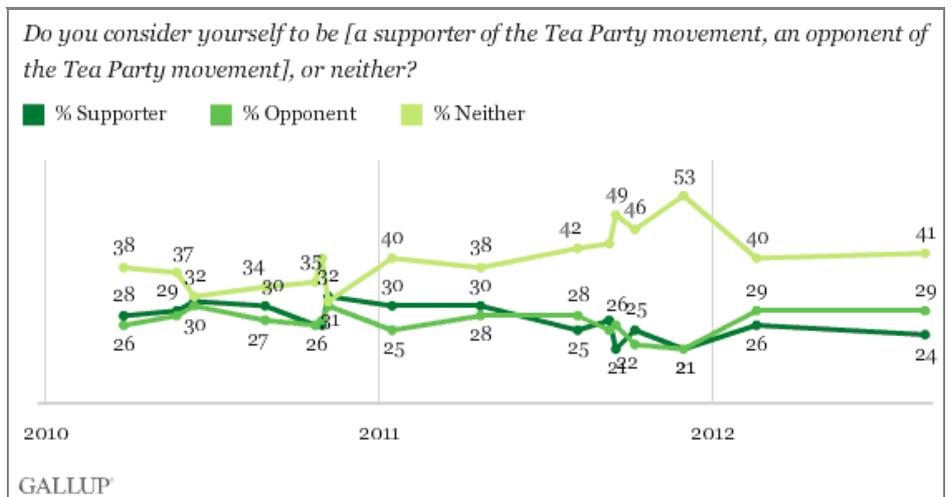
[그림 4] 미 대통령 재선 지지율 격차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5] 티파티 설문조사 - 티파티에 대한 반감이 커진 상황

티파티 인기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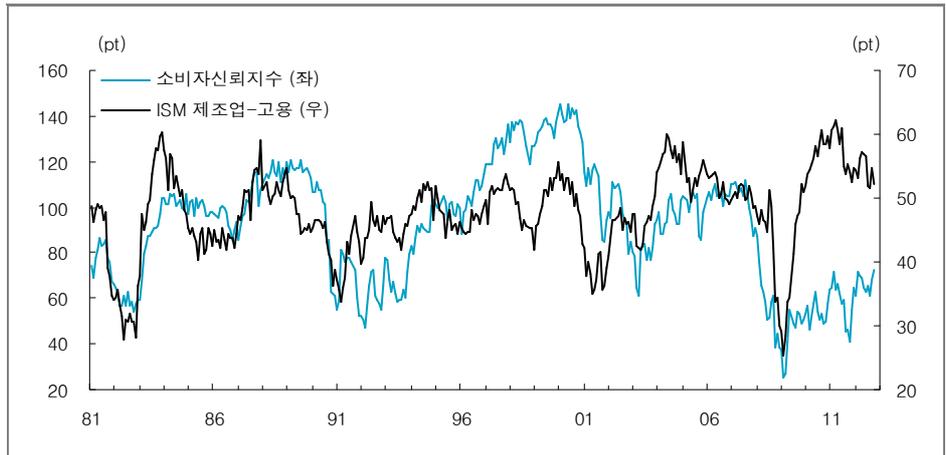
자료: Gallup, 한국투자증권

티파티 인기 하락 등으로 인해 미국 재정절벽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할지라도 연내에 조기합의하지 못하고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불확실성은 기업 투자, 고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소비 등 실물경기 회복에 부정적이다.

- 소비자신뢰지수는 주경기 반등에 힘입어 반등하고 있는 반면 불확실성으로 인해 ISM제조업(고용)지표는 횡보하고 있다.

[그림 6] 소비자신뢰지수와 ISM제조업(고용) 추이

미국 소비자신뢰지수는 상승하는데 ISM 제조업지수(고용)은 횡보하고 있음



자료: 한국투자증권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에 따른 업종별 영향은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금융기관 규제 본격화 우려로 BoA 등 금융업종은 약세가 나타났다. 또 환경규제 우려로 석탄회사 피바디에너지 등 에너지업종도 약세가 나타났다. 게다가 배당소득세, 자본이득세 상향 우려로 배당주 수급이 악화되었다.

- 오바마 대통령은 배당 소득세는 15%에서 5~10%p, 자본이득세는 15%에서 5%p 상향 추진할 예정이다.

[그림 7] 태양광업체(퍼스트솔라), 석탄회사(피바디에너지) 주가 일봉

퍼스트솔라 정책기대 지속가능한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 오바마 대통령 재선, 낙심할 것도 환호할 것도 없다

11월 6일 오바마 대통령 재선을 변곡점으로 KOSPI가 반등하길 기다려왔다. 그러나 안정적인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면서 11월 7일 미국 다우 산업평균이 2.4% 하락했고 KOSPI는 1,900pt 하단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기업투자 증가는 단기간내에 나타나기 어렵다. 양극화된 여론으로 인해 재정절벽에 대한 조기 합의가 어려워 기업투자를 제한하는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 또 롬니 공화당 후보는 기업투자를 자극하기 위해 역외기업이익 세금면제(tax holiday), 법인세 인하 등을 제안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단기간내에 미국 기업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 재선에 힘입어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제거되었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설사 사임한다 할지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후임 연준의장을 지명하는만큼 미국 QE3 등 통화정책은 지속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소비자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높다.

Appendix  
- 전주 주요일정

날짜	국가	내용
10/30	그리스	그리스 정부, 트로이카 채권단과 긴축안에 최종 합의, 긴축 시한을 2년 연장, 연금과 고용 등 엄격한 조건 적용
10/30	미국	월트디즈니, 루카스필름을 40.5억달러로 인수, 콘텐츠 확보를 위해 06년 픽사, 09년 마블엔터테인먼트 인수했었음
10/31	미국	뉴욕증시, 허리케인 샌디 여파로 3거래일만에 개장, 허리케인 이후 보수 수요 증가 기대로 홈디포와 로위 주가 상승
10/31	미국	재난 모델 회사인 AIR 월드와이드, 허리케인 샌디 보험 손실이 70억~150억달러로 추정, 전체손실은 약2배
10/31	미국	미국 시카고 PMI 10월 49.9, 예상치 51 하회, 9월 49.7에 이어 두달째 50pt 하회
10/31	미국	9월 개인소비 지출 0.8% MoM, 2월 이후 최고치, 8월에 0.5%에 이어 회복 이어지고 있음
11/01	한국	신한지주, 웅진그룹 관련 734억원 총당금 적립, 퇴직급여 총당금 906억원 등으로 인해 3분기 실적 악화
11/01	한국	S-Oil, 3분기 영업이익이 5,184억원, 유가 상승, 역대 정제설비 가동 중단, 일본 수출 증가로 이익률 개선
11/01	한국	미국 대선후보 2명이 셰일가스 개발에 적극적이라는 뉴스 보도,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유틸리티 강세
11/01	중국	중국 10월 제조업 PMI 50.2, 8월 49.2, 9월 49.8 상회, HSBC PMI와 마찬가지로 일부 회복되는 양상임
11/01	중국	중국 17기 중앙위원회 11월 1~4일 실시, 시진핑 등 지도부교체를 결정하는 18차 전국대표회의 일정, 안건 확정
11/01	그리스	그리스, 트로이카의 추가 긴축 합의에 대한 그리스 의회 표결이 야당 반발로 연기됨, 그리스 구제금융 불확실해짐
11/01	미국	ADP 미국 민간고용 10월 15.8만명 증가, 8개월내 최대,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10월 72.2로 예상치 70.3 상회
11/01	미국	ISM 10월 제조업지수 51.7, 9월 51.5, 예상치 51.0 상회, 9월 건설지출 0.6% MoM, 8월 -0.1%, 예상치 0.5% 상회
11/01	미국	10월 소비자신뢰지수, 10월 ADP민간고용 호조로 S&P500 1.09%, 나스닥 1.44% 상승
11/02	한국	CJ헬로비전의 기업공개(IPO) 관련 일반 공모 청약 미달, CJ 그룹주 약세
11/02	한국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약세, 대규모 리콜 사태 발생시 수출 위축될 전망
11/02	한국	KT, 자회사 KT뮤직을 통해 KMP홀딩스 인수, 로엔이 주도하는 국내음원 유통시장 진출
11/02	일본	Fitch, 사프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인 B-로 3단계 강등, S&P는 파나소닉의 장기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강등
11/02	미국	실업률 9월 7.8%에서 10월 7.9%로 상승했으나,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는 긍정적 해석
11/02	미국	10월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 전월대비 17.1만명 증가, 9월 11.4만명, 예상치 12.5만 크게 상회
11/03	중국	PMI 10월 비제조업 55.5, 건설경기 개선으로 9월 53.7보다 상승, 제조업 PMI와 함께 경기 상승세 뒷받침
11/04	한국	미 환경보호청, 현대-기아차에 연비 표기 수정 권고, 현대차그룹은 표기 오류를 인정하고 배상금 지급 의사 밝힘
11/04	중국	17기 7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폐막, 보시라이 전 당서기의 출당 처분 확정
11/05	한국	영광 원전 5, 6호기에 품질 위조된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연말까지 가동 정지, 한국전력 약세
11/05	한국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미국 연비 하향 조정 소식에 급락해 52주 신저가 경신
11/05	미국	10월 ISM 비제조업지수 54.2, 9월 55.1, 전망치 54.5 하회, 고용 지수는 상승했으나 신규 주문 감소
11/06	한국	문재인-안철수 대선 후보, 단독 회담을 갖고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에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
11/06	한국	다날 미국 현지법인, '휴대폰 인증을 이용한 국제 전자 결제 서비스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미국 특허 취득
11/06	한국	대우인터내셔널, 미얀마 가스전 시설 출항, 25~30년간 최대 10조원 수익 기대
11/06	호주	호주연방준비은행(RBA), 기준금리를 현행 3.25%에서 동결, 중국 경제지표 반등
11/06	프랑스	기업 노동비용 감소를 위해 200억 유로 규모의 세금 감면안 발표, 정부 재정 부족분은 부가가치세 인상 등으로 총당
11/06	미국	애플, 구글 '젤리빈' OS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 제기,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기존 소송에 포함하는 방식
11/07	한국	오바마 재선에 KOSPI 0.49% 상승, 셰일가스 등 신재생에너지와 헬스케어 관련주가 급등
11/07	미국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 50%, 공화당 롬니 후보 48%로 재선 확정,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
11/07	한국	E1,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 증동에 편중된 수입처를 다변화, 2014년부터 분기당 4.5만씩 매년 18만 수입할 예정
11/07	한국	원달러화환율, 1085.4원에 마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 소식에 원화 강세 이어져
11/07	미국	다우산업평균, 2.36% 급락한 1만2932.73으로 마감, 오바마 대통령 재선으로 BoA 등 금융주 하락세 두드러져
11/07	미국	오바마 대통령 재선 이후 통화정책과 달리 재정절벽 합의 불확실성 높아짐, 6,000억 달러 재정 긴축 우려
11/07	미국	공화당 베이너 하원의장, 민주당이 재정 지출 축소에 동의한다면 재정절벽 회피하기 위한 협상 시작할 예정
11/07	미국	애플, 주당 558달러로 마감, 9월 21일 705.07달러 대비 21% 하락, 아이폰5 생산차질, 경영진재편 등 우려 높음
11/07	그리스	그리스 의회, 향후 2년간 135억유로 재정지출 긴축안을 통과시킴, 구제금융 가능성 높아짐
11/08	한국	GS건설, 3분기 영업이익이 492억원, -73.8% YoY, 주택 대손충당금 반영이 없음에도 실적 크게 부진함
11/08	한국	엔씨소프트, 블레이드소울 매출 예상치 하회 등으로 약세, 또 유상증자 루머가 부각되면서 추가 하락
11/08	한국	웅진홀딩스, 웅진코웨이 매각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 합의, MBK파트너스 13년 1월 인수완료 예정
11/08	인도	인도 내 일본계 기업 2008년 438개사, 2011년 812개사, 2012년 10월초 926개사로 증가했다고 교통통신 보도

## 재정절벽 이슈 및 성장둔화 우려로 급락

- ▶ 중국 후진타오 주식, 2020년 GDP 규모 및 1인당 소득 2010년 대비 1배 확대 목표
- ▶ 중국 후진타오 주식, 경제성장은 여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
- ▶ 중국 18대 대변인, “경기반등 모멘텀 아직 안정적이지 못해”

상해증시 급락 마감  
경기회복 미진, 내년  
성장둔화 우려 부각

###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장 중 약세를 지속하며 1.6% 급락세로 마감했다. 거래금액은 493억 위안으로 직전 거래일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중국의 18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으로 구조조정 강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 후진타오 국가 주식이 2020년 GDP 규모를 예상보다 낮게 제시해 성장 둔화에 대한 불안을 부추겼다. 9일에 발표되는 10월 주요 지표에 대한 불확실성과 미국 재정절벽 우려도 하락요인이었다. 10월 주요 경제지표 결과가 빠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낮출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 상품가격 하락으로 금속, 석탄 관련주가 크게 내렸고 실적 악화로 증권주 약세도 지속됐다. 전 업종이 하락했고 석유/천연가스(-6.4%), 석탄(-3.9%), 정유/화학(-3.7%), 비철금속(-3.4%), 통신장비(-3.3%), IT하드웨어(-3.3%), 제지(-3.3%), 방직/의류(-2.9%), 유틸리티(-2.8%), 일반기계(-2.4%), 자동차(-2.3%), 가전(-2.1%), 건설(-1.9%) 등의 낙폭이 컸다.

### ■ 홍콩 시장

홍콩H지수는 하루 만에 급락했다. 재정책대 및 경기부양을 강조하는 오마바가 미국 대통령 연임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절벽 이슈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중국 공산당의 18차 당 대회가 개막하면서 새로운 지도부가 경기부양보다 구조조정을 강조할 것이라는 정책 불확실성도 강해졌다. 개막 연설을 통해 후진타오 주식이 2020년까지 GDP 규모를 1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도 경제성장률 목표치 하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돼 지수 낙폭이 확대됐다. 모든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석탄, 광업, 금속, 정유 등 자원주와 자동차주가 큰 폭으로 내렸다.

홍콩H지수 2.7%급락  
전 업종 약세. 금속, 에너지  
등 자원주 급락

####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11/8(목)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071.51	-1.63	-1.56	0.13	-5.82
홍콩 H	10,527.13	-2.65	-1.63	-0.52	5.94
인도 SENSEX	18,843.76	-0.31	1.52	1.83	21.93
러시아 RTS	1,417.29	-0.68	-1.16	-1.16	2.56
브라질 보베스파	58,517.35	-1.58	1.45	2.54	3.11
베트남 VN	385.60	1.23	-0.61	-0.73	9.69
MSCI 이머징마켓	1,007.45	0.12	0.78	1.22	9.94

주: 8일 오후 6시 기준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미 재정절벽 우려가 현안으로 부각되며 코스피 급락

- 재정절벽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며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옵션만기일과 미 증시 여파로 코스피는 1,920P선을 이탈하며 출발. 옵션만기일을 맞아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지며 지수는 1,900P선까지 급락하기도 했으나,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다소 축소 1,910P선에서 마감. 미국 재정절벽 우려감과 유로존 성장을 전망 하향 조정 소식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모습. 반면, 갭 하락으로 출발한 코스닥은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기관 매수세로 낙폭을 만회하며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 재선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된 제약주와 셰일가스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임. 3분기 실적 호조를 기록한 휴켄스는 120만톤 규모의 말레이시아 화학공장 설립 추진 소식이 전해지며 급등했으며, 무상 감자 후 재상장한 대한전선은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과 함께 대규모 수주 소식이 더해지며 상한가를 기록. 또한, 일본 내 연골세포치료제 '콘드론'의 전임상시험 종료 소식에 세원셀론텍이 강세를 보임. 반면, GS건설을 비롯한 대형 건설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3분기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 발표로 증권사들이 줄지어 목표주가를 하향한 엔씨소프트는 유상증자 루머까지 더해지며 신저가를 경신

종목/테마	내 용
<b>휴켄스(069260)</b> <b>▶25,800(+5.95%)</b>	<b>120만 톤 규모의 화학공장 설립 소식에 견조한 오름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정부와 화학단지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급등세. 2016년까지 8천억원을 투자해 120t 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예정</li> <li>- 비료, 합성섬유, 폴리우레탄 등의 기초 원료인 암모니아는 국내 생산업체가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연간 최대 5천억원의 수입대체효과 기대</li> </ul>
<b>대한전선(001440)</b> <b>▶8,570(상한가)</b>	<b>대규모 수주 및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에 변경상장 첫 날 상한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동과 동남아에서 1,400만달러 규모 산업전선과 초고압 케이블을 연이어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실적 개선 기대감에 변경상장 첫날 상한가</li> <li>- 아울러, 7대 1의 무상 감자 실시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 및 세계적으로 노후전선 교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li> </ul>
<b>세원셀론텍(091090)</b> <b>▶3,850(+11.76%)</b>	<b>연골세포 치료제 전임상 종료 소식에 초강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내 연골세포치료제 '콘드론'의 전임상 종료 소식에 초강세.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무릎관절 질환 환자가 연간 700만명에 달하는 일본 시장 진출시 큰 폭의 이익 성장 기대</li> <li>- 국내에서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인하대병원, 이화여대부속 목동병원 등 3개 의료기관의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국내 시판후조사에 들어갈 예정</li> </ul>
<b>셰일가스 관련주</b>	<b>업황 개선 기대감에 강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셰일가스 산업 성장 기대감에 강세.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셰일가스를 안전하게 개발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li> <li>- SH에너지화학(002360 상한가), SK가스(018670, +10.58%), 비에이치아이(083650, +7.05%), 디케이락(105740, +3.00%), 한국가스공사(036460, +1.91%) 등 강세</li> </ul>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기 유망종목: 엠케이전자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엠케이전자 (033160)	4,420 (+5.6)	4,185 (1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본딩와이어 시장은 비용부담이 큰 골드(Gold)본딩와이어의 대체품으로 구리를 사용한 본딩와이어(PCC; Pd Coated Copper Wire)가 개발돼 시장 구조의 변화가 진행 중임, 당사는 글로벌 구리본딩와이어 시장에서 일본 NMC사에 이어 M/S 2위 기록 중</li> <li>- 현재 구리본딩와이어는 대만 패키지 업체들로 주로 공급되고 있으나, 향후 국내 칩메이커들로도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PCC의 매출 확대에 의해 2%대에 불과하던 영업이익률은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li> </ul>
로엔 (016170)	14,400 (-0.3)	14,450 (1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음원가격 상승으로 멜론 서비스의 가입자당 매출액(ARPU) 증가와 함께 SKT와의 공동 마케팅으로 인한 가입자 증가에 따른 성장성 부각 가능성</li> <li>- 저작권 보호, 콘텐츠 수요 확대 등 우호적인 산업, 보유 아티스트 라인업 확대, 수직 계열화된 사업부문의 경쟁력, 경쟁업체 대비 저평가 매력 등을 주목할 필요</li> </ul>
CJ E&M (130960)	29,500 (+3.3)	28,550 (1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바일 기기 확산과 유통채널 다양화로 인해, 고성장이 예상되는 콘텐츠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게임, 영화, 방송, 음악 및 공연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안정적인 성장동력을 내재</li> <li>-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나, 신규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출시, 방송 부문의 프로그램 경쟁력, 다수의 영화 라인업, 비용 통제 등을 감안할 때 4분기 실적 개선 기대 유효</li> </ul>
골프존 (121440)	55,000 (-1.8)	56,000 (1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크린골프 라운딩수 증가와 유료라운딩을 상승으로 네트워크 매출 호조, 신제품 골프시뮬레이터 비전의 양호한 매출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li> <li>- 또한 골프존 아카데미, 골프존 마켓 등 기존 신규 사업 외에 무료 필드 부킹과 디지털 캐디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추가 수익원 발굴 노력을 주목할 필요</li> </ul>
농심 (004370)	246,500 (-10.0)	274,000 (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물 라면의 퇴조, 적극적 신제품 출시 효과, 시장경쟁 완화, 경쟁사의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3분기 라면시장 점유율은 66.1%( 2분기 63.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 영업이익 개선 모멘텀 재개 예상</li> <li>- 프리미엄 라면을 중심으로 한 라면시장의 성장 가능성, 고가품 비중 확대, 이익 가시성 강화, 규제 리스크 완화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상승 여력 상존</li> </ul>
녹십자 (006280)	148,000 (-4.5)	155,000 (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기반 하에 바이오 의약품,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성장 모색</li> <li>- IVIG(면역결핍치료제) 및 그린진-F(유전자 재조합 혈우병 치료제)의 미국 임상3상 진입, 태국 혈액제제 플랜트 수출, GC China(홀딩스 자회사)을 통한 직수출 확대 등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 지속</li> </ul>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골프존 발행주식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업무를 수행한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중장기 유망종목: 삼영이엔씨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2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삼영이엔씨 (065570)	7,180 (-0.8)	7,240 (11/07)	46	11	9	1,023	7.0
- 방산부문의 안정적인 수요, 선박안전 관련 규제 강화(Solas협약, 어선법), 일본 및 중국으로의 수출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예상 -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세, 20%를 상회하는 영업이익률, 안정적인 재무구조, 우호적인 시장 환경 등을 감안할 때 리레이팅 가능성 상존							
삼성전자 (005930)	1,350,000 (+3.9)	1,299,000 (10/30)	203,704	28,800	22,831	151,499	8.9
- 갤럭시S3의 판매 호조에 따른 스마트폰 판매 증가 및 이익률 상승으로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 최근 갤럭시노트10.1의 호평에 힘입어 태블릿의 경쟁력 부각 - 휴대폰 부문의 캐시카우 역할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실적 개선 본격화로 2013년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NHN (035420)	260,000 (+0.0)	260,000 (10/23)	2,377	633	503	11,428	22.8
-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높은 검색 점유율 유지 -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인 '라인(LINE)'의 일본 등 해외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로 중장기 성장원 확보 - 워닝일레븐 온라인 등 신규 대작 게임들의 출시로 웹보드게임 부진을 만회할 전망							
KCC (002380)	309,000 (+10.8)	279,000 (9/27)	3,434	225	696	70,906	4.4
- 금년 하반기부터 주택 입주량이 3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함에 따라 이익의 Down-side Risk 완화. 전략적 지분 매입을 통한 Captive market(올해 1월에는 에버랜드 주식 매입)을 확보하고 있어 경쟁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 안정성 확보 - 전방산업의 업황 바닥 통과 가능성, 수직 계열화를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 이익 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씨유메디칼 (115480)	15,800 (+7.5)	14,700 (9/20)	28	8	7	1,164	13.6
- 독일, 일본 등 선진시장에 해외법인을 신설해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일반인용 심장충격기) 수출 교두보를 확보한 상태로 향후 수출 본격화 예상 - AED 구비 의무화 대상 확대, 대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영업망 확대, 재활치료기 보급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장기 성장 잠재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LG화학 (051910)	305,500 (-6.3)	326,000 (9/17)	24,006	2,177	1,627	22,136	13.8
-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다각화된 사업구조와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으로 안정적인 이익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LCD용 유리기관, 2차전지 등 장기 성장성을 주목할 필요 -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 개선, 정보전자소재 및 전지 제품의 판매량 증가 등으로 3분기에는 실적 개선 기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전자, LG화학, NHN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미디어 · 광고: 플랫폼 경쟁 심화와 콘텐츠 수요 증가

### ■ 콘텐츠 수요 증가는 필연적, 업종 프리미엄 지속될 전망

콘텐츠 업체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업종의 주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 미디어 · 광고 업종에 대해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1) 디지털 전환 확산, 플랫폼간 경쟁 심화, 시청자 요구에 맞는 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 등으로 콘텐츠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2) 유료방송 시장의 시장 재편으로 상위 업체의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해외 부문 매출 확대로 내수 시장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4) 13년 실질 GDP성장률은 3.7%로 예상되며 경기 개선으로 광고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뉴미디어 광고 확대, 민영 미디어랩 도입 효과 & 방송시간 경쟁에 따른 콘텐츠 질 향상 등으로 광고 효율성이 높아지며, 신규 광고주가 유입되면서 13년 광고 시장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4.5% 성장할 전망이다.

### ■ 13년부터 향후 2~3년간 키워드는 플랫폼 경쟁 심화와 콘텐츠 수요 증가

콘텐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콘텐츠 업체의 협상력이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1) 스마트기기 이용 확산을 비롯해 플랫폼이 다양화되고 무선인터넷 발전으로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져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고, 2) 신규 플랫폼이 늘어나며 사업자간 경쟁 심화로 킬러 콘텐츠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업체의 콘텐츠 시장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콘텐츠 업체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형태의 제작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3) 콘텐츠 소비 패턴이 변하면서 콘텐츠의 재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향후 미디어 산업의 키워드는 ‘콘텐츠 수요 증가’다.

### ■ 13년 투자 유망 종목: 에스엠, 스카이라이프

미디어 · 광고 업종 내 선호주를 선정하기 위해 실적 개선, valuation, 주요 이슈에 대한 수혜 정도,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 등을 기준으로 점수화해 13년 투자 유망 종목을 평가했다. 실적 개선 추이, 미디어 산업 변화에 따른 수혜 정도로 투자 매력을 점검하면 에스엠, 스카이라이프, 제일기획, 와이지, CJ E&M 순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1월 7일 당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엔씨소프트(036570)

**매수(유지)**

목표가: 300,000원(하향)

종가(11/7): 213,000원

### 블레이드앤소울/길드워2 콘텐츠 업데이트로 트래픽 회복

#### ■ What's new: 길드워2 금년 판매량 300만장, 아이템 매출 200억원 예상

엔씨소프트는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길드워2의 금년 판매량은 300만장, 아이템 판매는 2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길드워2의 이용시간이 출시 초기대비 감소했지만 이미 안정화됐고 아이템 판매도 건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길드워2는 10월말 'shadow of the mad king' 를 업데이트해 트래픽이 증가했고, 12월에 콘텐츠 업데이트를 실시할 예정이며, 2013년에는 확장팩 출시를 계획 중이다. 엔씨소프트는 10월부터 블레이드앤소울의 콘텐츠 업데이트를 거의 매주 실시하고 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콘텐츠가 강력해 성과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블레이드앤소울과 길드워2의 중국 서비스 시기는 2013년 하반기로 전망했다. 금년 4분기 영업비용으로 프로야구단 선수 영입에 150억원이 소요되겠지만, 마케팅비 등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 ■ Positives: 영업이익은 1회성 이익 발생으로 우리 추정치 부합

3분기 영업이익은 506억원으로 우리 추정치 518억원에 부합했다. 최근 실제 시장 추정치였던 400억원대비 많으나 1회성 이익(엔트리브 관련 파생상품평가이익 73억원과 소송관련 잡이익 98억원)과 1회성 비용(NC재단 출연금으로 인한 기부금 26억원)을 제외하면 예상 수준이다. 4분기에는 길드워2 패키지과 아이템 판매 이월분이 매출로 인식되고, 리니지1 아이템 판매 증가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730억원과 1,014억원으로 전분기대비 각각 49.8%, 100.3% 증가할 전망이다.

#### ■ Negatives: 기존 게임 매출 감소로 매출액은 컨센서스 하회

3분기 연결 매출액은 1,822억원으로 전분기대비 25.2% 증가했지만, 우리 추정치를 18.3% 하회했다. 리니지1, 아이온 등 기존 게임 매출이 전분기대비 큰폭으로 감소했고, 블레이드앤소울 매출이 327억원으로 예상보다 적었으며, 길드워2 매출이 3개월로 분할되어 458억원 밖에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 결론: 목표주가 30만원으로 하향조정, 투자의견 '매수' 유지

엔씨소프트에 대한 목표주가를 34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조정한다. 목표주가는 2013년 예상 EPS 14,993원에 목표 PER 20배를 적용해 구했다. 목표주가를 하향조정한 이유는 기존 게임 매출 감소 등을 반영해 수익전망을 낮췄기 때문이다. '매수' 의견을 유지하는 근거는 다음 세가지다. 1) 금년 4분기 실적은 길드워2와 리니지1 매출 증가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블레이드앤소울과 길드워2 중국 서비스 개시와 길드워2 확장팩 출시로 2013년에서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3) 2013년 예상 PER은 14.2배로 낮아진다.

(단위: 십억원, %, %p)

	3Q12P				증감률		2012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223	182	(18.3)	219	24.1	23.4	742	797
영업이익	52	51	(2.2)	64	흑전	49.8	157	187
영업이익률(%)	23.2	27.8	-	29.3	-	-	21.1	23.5
세전이익	56	54	(3.7)	62	흑전	39.6	173	206
순이익	41	47	14.0	47	흑전	74.9	136	152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1월 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이수정 (sujeong.lee@truefriend.com) ☎ 02-3276-6252

##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1/01(목)	11/02(금)	11/05(월)	11/06(화)	11/07(수)	11/08(목)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898.44	1,918.72	1,908.22	1,928.17	1,937.55	1,914.41	
	등락폭	-13.62	20.28	-10.50	19.95	9.38	-23.14	
	등락종목	상승(상한)	308(6)	520(7)	373(8)	496(4)	410(4)	270(11)
		하락(하한)	506(4)	309(4)	447(2)	335(3)	401(3)	534(1)
	ADR	79.50	80.50	82.07	83.26	87.20	85.84	
	이격도	10 일	99.17	100.36	99.98	101.02	101.39	100.23
		20 일	98.12	99.37	99.01	100.18	100.69	99.54
	투자심리	40	50	50	60	70	60	
	거래량 (백만 주)	396	441	337	540	550	654	
거래대금 (십억 원)	5,177	5,580	4,538	4,501	4,580	5,304		
코스닥	코스닥지수	508.83	513.37	515.14	517.53	518.45	519.04	
	등락폭	0.52	4.54	1.77	2.39	0.92	0.59	
	등락종목	상승(상한)	378(7)	589(8)	478(8)	481(10)	459(12)	382(4)
		하락(하한)	534(2)	341(2)	439(1)	440(3)	464(2)	536(4)
	ADR	80.43	81.33	82.24	81.67	84.50	83.45	
	이격도	10 일	99.22	100.21	100.71	101.31	101.61	101.71
		20 일	97.36	98.44	98.99	99.67	99.99	100.26
	투자심리	70	60	70	70	70	80	
	거래량 (백만 주)	399	445	382	459	455	455	
거래대금 (십억 원)	1,796	1,776	1,697	2,113	1,830	1,778		

##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927.2	1,204.2	1,144.0	266.8	104.6	214.5	73.3	53.9	227.9	60.2
	매도	2,526.5	1,322.6	1,444.2	233.6	130.1	304.0	104.6	31.2	219.7	42.3
	순매수	<b>400.7</b>	<b>-118.5</b>	<b>-300.2</b>	<b>33.2</b>	<b>-25.5</b>	<b>-89.5</b>	<b>-31.3</b>	<b>22.7</b>	<b>8.3</b>	<b>17.9</b>
	11 월 누계	<b>164.3</b>	<b>306.7</b>	<b>-160.2</b>	<b>215.8</b>	<b>21.3</b>	<b>-75.8</b>	<b>-13.3</b>	<b>6.6</b>	<b>190.6</b>	<b>-310.8</b>
	12 년 누계	-10,912.9	13,984.6	1,895.3	1,799.6	2,583.7	-5,168.7	-34.6	424.4	2,431.1	-4,967.0
코스닥	매수	1,599.9	63.1	115.0	25.8	14.7	35.7	5.5	8.5	23.3	14.4
	매도	1,616.1	75.1	79.2	15.9	13.8	25.7	5.1	3.9	12.3	21.9
	순매수	<b>-16.3</b>	<b>-12.0</b>	<b>35.8</b>	<b>10.0</b>	<b>1.0</b>	<b>10.0</b>	<b>0.4</b>	<b>4.6</b>	<b>11.0</b>	<b>-7.5</b>
	11 월 누계	<b>17.5</b>	<b>-61.1</b>	<b>76.7</b>	<b>42.6</b>	<b>-3.4</b>	<b>18.3</b>	<b>-9.9</b>	<b>5.6</b>	<b>20.6</b>	<b>-33.1</b>
	12 년 누계	1,110.2	53.3	-416.0	94.9	77.6	-596.0	-205.1	-32.7	242.3	-747.5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업	7,020	건설업	-36,273
제조업	3,284	운수장비	-21,186
의약품	2,158	금융업	-11,714
SK	8,685	엔씨소프트	-22,265
NHN	8,302	GS건설	-19,896
SK하이닉스	4,052	현대건설	-10,577
SK텔레콤	3,901	삼성전자	-8,495
KT&G	3,282	SK이노베이션	-8,409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35,718	건설업	-36,925
유통업	11,867	금융업	-27,938
통신업	8,791	운수창고	-7,813
삼성전자	15,888	GS건설	-27,165
NHN	9,896	엔씨소프트	-25,591
LG	8,518	KB금융	-12,826
KT	8,420	신한지주	-7,793
SK하이닉스	7,663	호남석유	-7,558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5,778	보험	-197
통신업	3,466	종이,목재	-3
서비스업	2,627	의료정밀	11
KODEX 200	2,948	LG전자	-3,538
SK텔레콤	2,857	현대모비스	-868
LG화학	2,164	삼성물산	-867
하나금융지주	1,880	GS	-751
효성	1,727	LG	-643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2,931	건설업	-19,022
전기가스업	3,192	운수장비	-9,671
통신업	2,369	서비스업	-7,722
KODEX 200	10,917	KODEX 인버스	-21,575
KINDEX200	10,000	GS건설	-14,003
한국가스공사	4,813	SK이노베이션	-4,656
SK하이닉스	4,609	삼성물산	-4,413
LG디스플레이	3,943	현대중공업	-3,949

##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가스업	14,807	건설업	-109,838
통신업	14,015	운수장비	-61,518
음식료품	4,463	금융업	-48,617
NHN	25,820	엔씨소프트	-68,824
KODEX 200	19,244	GS건설	-62,978
SK	17,601	KODEX 레버리지	-51,996
SK하이닉스	16,660	삼성전자	-37,473
LG	12,845	현대차	-33,963
LG전자	12,423	KB금융	-28,100
LG디스플레이	11,922	현대건설	-26,551
한국가스공사	9,946	삼성물산	-22,094
SK텔레콤	9,908	POSCO	-22,004
삼성중공업	7,399	대림산업	-21,196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46,043	서비스업	-70,158
유통업	8,565	화학	-28,544
건설업	5,852	통신업	-15,605
현대차	60,301	NHN	-29,750
삼성전자	46,807	KODEX 200	-23,253
현대건설	15,285	LG디스플레이	-22,019
KODEX 인버스	12,675	SK하이닉스	-21,945
현대모비스	12,332	LG전자	-17,509
KB금융	10,361	현대중공업	-17,297
호텔신라	10,271	SK텔레콤	-16,432
POSCO	8,556	엔씨소프트	-16,016
SK이노베이션	5,978	KODEX 레버리지	-13,571
삼성전기	4,663	LG	-12,981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IT부품	3,727	방송서비스	-1,944
계약	2,841	컴퓨터서비스	-1,075
디지털컨텐츠	2,629	소프트웨어	-681
인터플렉스	3,126	유프론텍	-5,041
멜파스	2,316	CJ오쇼핑	-2,043
파라다이스	1,970	플랜티넷	-961
컴투스	1,810	한글과컴퓨터	-727
하나투어	1,435	심텍	-712

연 기 금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IT부품	3,262	반도체	-1,144
인터넷	1,900	기계,장비	-413
계약	1,715	화학	-254
다음	1,900	OCI머티리얼즈	-892
포스코엠텍	1,025	네패스	-866
SK브로드밴드	946	JCE	-803
플렉스컴	893	에스에프에이	-544
실리콘웍스	889	에이블씨엔씨	-458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1,059	출판,매체복제	-486
계약	633	디지털컨텐츠	-122
소프트웨어	605	반도체	-64
다음	1,059	예림당	-696
실리콘웍스	841	서울반도체	-427
하나투어	405	멜파스	-246
코오롱생명과학	281	심텍	-238
바이오랜드	265	실리콘화일	-193

보 험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2,807	전문기술	-1,448
화학	906	기계,장비	-1,203
금속	505	사업지원	-874
위메이드	1,473	에스맥	-2,035
멜파스	1,160	CJ E&M	-1,325
인터플렉스	788	코오롱생명과학	-999
JCE	730	하나투어	-989
컴투스	728	다음	-631

##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IT부품	16,070	반도체	-3,500
디지털컨텐츠	7,696	컴퓨터서비스	-1,270
계약	6,805	금융서비스	-1,062
인터플렉스	8,055	유프론텍	-5,384
멜파스	6,933	네패스	-4,381
컴투스	3,919	심텍	-2,083
실리콘웍스	2,621	에스에프에이	-1,624
파라다이스	2,323	CJ오쇼핑	-1,569
다음	2,153	하이비전시스템	-1,092
이엘케이	1,940	플랜티넷	-1,061
게임빌	1,693	파워로직스	-1,048
코오롱생명과학	1,688	서울반도체	-874
플렉스컴	1,686	네오위즈인터넷	-799

외 국 인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IT부품	4,104	계약	-10,133
의료,정밀기기	1,423	디지털컨텐츠	-4,031
화학	1,172	오락,문화	-3,741
인터플렉스	1,195	셀트리온	-10,693
CJ오쇼핑	747	파라다이스	-4,043
태광	703	다음	-1,550
서울반도체	651	컴투스	-1,400
오스템임플란트	627	GS홈쇼핑	-1,388
유프론텍	559	게임빌	-1,231
에이블씨엔씨	552	에스엠	-1,078
SK브로드밴드	538	네오위즈인터넷	-942
KG이니시스	443	코오롱생명과학	-892
네패스	419	실리콘웍스	-816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LG디스플레이	23 일	롯데쇼핑	18 일
LG전자	23 일	한국셀석유	9 일
빙그레	20 일	POSCO	8 일
효성	17 일	한라공조	8 일
대웅제약	15 일	현대미포조선	7 일
웅진코웨이	14 일	신세계	6 일
LG	13 일	무림P&P	6 일
오리온	10 일	호남석유	6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포스코엔텍	14 일	우주일렉트로	8 일
이엘케이	10 일	휴맥스	8 일
포스코 ICT	8 일	태광	7 일
이트레이드증권	6 일	이트레이드증권	7 일
파라다이스	5 일	하이록코리아	5 일
SK컴즈	5 일	아트라스BX	5 일
셀트리온	5 일	SK브로드밴드	4 일
메가스터디	4 일	CJ오쇼핑	4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228,535	현대차	177,020
LG디스플레이	70,138	삼성SDI	32,714
GS	68,167	호텔신라	30,094
SK	60,172	현대건설	27,453
NHN	58,357	POSCO	25,638
삼성중공업	52,334	삼성전자	24,333
하나금융지주	51,974	현대미포조선	23,943
LG전자	50,630	호남석유	22,650

KOSDAQ			
기	관	외	국 인
멜파스	12,487	다음	6,001
인터플렉스	8,711	서울반도체	5,941
코오롱생명과학	8,117	태광	4,624
에스엠	5,686	아트라스BX	3,112
파라다이스	4,790	평화정공	2,811
이엘케이	4,197	휴맥스	2,682
하나투어	3,921	SK브로드밴드	2,661
포스코엔텍	3,555	오스템임플란트	2,364

##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의약품		2,910	851
-		-	-
-		-	-
KODEX 인버스		2,228	12,675
LG상사		4,649	812
휴켄스		3,409	446
현대미포조선		1,824	1,919
스카이라이프		1,004	1,011
한세실업		1,109	181
넥센타이어		531	743
현대상사		975	138
LG생명과학		435	462
SK가스		738	147

KOSDAQ			
종	목	기	관
IT부품		16,070	4,104
도매		2,004	361
의료,정밀기기		867	1,423
인터플렉스		8,055	1,195
멜파스		6,933	118
SK브로드밴드		1,560	538
동국제약		1,510	248
플렉스컴		1,686	35
비에이치		1,073	62
씨젠		1,041	94
라이브플렉스		862	127
유아이디		802	146
이엔에프테크놀로지		632	150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한진해운홀딩스	20 일	NHN	31 일
한일이화	19 일	일성신약	16 일
두산중공업	19 일	하나금융지주	15 일
동양기전	16 일	SK텔레콤	14 일
GS건설	15 일	LG	12 일
TIGER 소프트웨어	14 일	유한양행	11 일
한라공조	13 일	삼성테크윈	11 일
대한항공	11 일	경방	10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동국산업	10 일	덕산하이메탈	11 일
현진소재	6 일	성우하이텍	7 일
네패스	5 일	에이테크솔루션	7 일
오스템임플란트	4 일	동서	6 일
동서	3 일	셀트리온	6 일
한국토지신탁	3 일	OCI머티리얼즈	5 일
OCI머티리얼즈	3 일	하나투어	5 일
웹젠	3 일	동진씨미켄	4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현대차	-194,551	NHN	-81,167
기아차	-132,744	SK텔레콤	-65,466
현대모비스	-87,866	LG디스플레이	-60,938
GS건설	-83,080	LG	-46,302
엔씨소프트	-81,026	KODEX 200	-43,532
POSCO	-47,665	하나금융지주	-42,316
현대건설	-37,367	한국전력	-33,865
대한항공	-26,113	LG화학	-29,192

KOSDAQ			
기	관	외	국 인
다음	-10,521	셀트리온	-42,463
네패스	-9,995	덕산하이메탈	-5,867
옵트론텍	-6,993	하나투어	-5,649
KG이니시스	-3,917	메디톡스	-5,464
CJ오쇼핑	-3,890	게임빌	-3,702
덕산하이메탈	-3,542	코오롱생명과학	-2,939
평화정공	-3,437	컴투스	-2,817
서부T&D	-3,340	네오위즈게임즈	-2,778

##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서비스업		-24,341	-70,158
금융업		-48,617	-9,611
화학		-19,269	-28,544
엔씨소프트		-68,824	-16,016
GS건설		-62,978	-8,107
KODEX 레버리지		-51,996	-13,571
삼성물산		-22,094	-1,269
현대중공업		-4,569	-17,297
신한지주		-16,554	-4,703
기아차		-10,866	-6,640
LG화학		-14,047	-1,841
현대제철		-13,914	-297
S-Oil		-6,726	-7,137
합	계		

KOSDAQ			
종	목	기	관
반도체		-3,500	-876
기계, 장비		-972	-733
방송서비스		-975	-633
네오위즈인터넷		-799	-942
에스에프에이		-1,624	-21
하이비전시스템		-1,092	-30
예림당		-700	-334
OCI머티리얼즈		-548	-301
디케이락		-635	-134
잉크테크		-599	-151
우리산업		-638	-6
엘비세미콘		-226	-172
실리콘화일		-193	-83
합	계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10	13,927
엔씨소프트	54	11,622
S-Oil	91	9,096
기아차	92	5,302
LG디스플레이	146	5,275
SK	31	5,131
SK하이닉스	166	4,303
한화케미칼	163	2,99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535	14,547
메디투스	7	659
지엔코	149	430
하나투어	7	413
KG모빌리언스	20	294
나노신소재	21	288
OCI머티리얼즈	7	258
메가스터디	3	241

##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347	5,920,209
LG전자	43,619	3,371,715
POSCO	9,680	3,252,544
OCI	9,807	1,573,947
현대차	6,463	1,373,325
NHN	3,683	933,605
SK하이닉스	32,554	846,402
현대모비스	2,746	744,03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7,776	752,743
서울반도체	6,286	137,028
에스엠	1,553	102,483
덕산하이메탈	2,814	53,615
인터플렉스	720	48,451
위메이드	943	47,908
게임빌	407	45,566
에이블씨엔씨	453	41,175

##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전기가스업	1,442	서비스업	-2,858
음식료품	457	금융업	-2,389
통신업	372	전기,전자	-1,845
한국전력	1,487	LG디스플레이	-2,514
SK하이닉스	1,084	STX조선해양	-1,068
하이트진로	539	한진해운	-802
두산인프라코어	377	외환은행	-763
동국제강	370	현대상선	-760
영진약품	356	신한지주	-754
넥센타이어	347	LG	-750
SG세계물산	300	하나금융지주	-702
아시아나항공	282	대우건설	-628
중국원양자원	213	동부제철	-55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제약	477	반도체	-1,038
IT부품	441	종합건설	-443
소프트웨어	328	운송장비, 부품	-319
셀트리온	465	주성엔지니어링	-982
KG이니시스	254	서희건설	-442
휴맥스	250	서울반도체	-322
솔고바이오	200	성우하이텍	-310
원익IPS	129	STS반도체	-240
심텍	127	유진기업	-119
차바이오앤	113	유니슨	-93
네오위즈게임즈	112	에스엠	-73
인터파크	99	태광	-56
루멘스	87	인터플렉스	-50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1/02(금)	11/05(월)	11/06(화)	11/07(수)	11/08(목)
외국인	13,984.6	306.7	99.4	138.1	-53.3	3.2	129.8	-118.5
기관계	1,895.3	-160.2	221.6	401.7	-11.2	164.3	-33.0	-300.2
(투신)	-5,168.7	-75.8	130.3	128.4	-22.4	59.9	53.8	-89.5
(연기금)	2,545.5	169.8	179.2	103.6	21.3	58.7	10.8	-15.2
(은행)	424.4	6.6	12.4	1.8	-8.4	-8.0	4.4	22.7
(보험)	2,583.7	21.3	27.6	51.7	-12.2	31.6	-17.9	-25.5
개인	-10,912.9	164.3	2.0	-197.1	72.0	-167.0	-106.6	400.7
기타	13,984.6	306.7	99.4	-342.6	-7.6	-0.4	9.8	17.9

주: KOSDAQ 제외

##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11/01(목)	11/02(금)	11/05(월)	11/06(화)	11/07(수)
KOSPI	1,682.77	2,051.00	1,825.74	1,898.44	1,918.72	1,908.22	1,928.17	1,937.55
고객예탁금	12072.0	14068.5	17680.2	17735.6	17713.7	17782.8	17309.0	17296.7
(증감액)	2735.7	1996.5	3611.7	862.5	-21.9	69.1	-473.8	-12.3
(회전율)	52.6	51.5	34.2	40.1	41.5	35.7	38.8	37.8
실질예탁금 증감	-292.5	-3502.6	3775.5	722.3	-168.5	160.1	-677.5	18.9
신용잔고	4359.5	5938.3	4476.3	4390.4	4386.5	4415.6	4434.0	4461.8
미수금	240.2	192.3	187.7	127.9	88.7	110.2	90.1	108.3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1/01(목)	11/02(금)	11/05(월)	11/06(화)	11/07(수)
전체 주식형	95,819	-6,897	-17	-47	-99	44	18	1
(ex. ETF)		-9,196	-119	17	-42	-46	19	-41
국내 주식형	68,800	-3,831	68	-30	-81	61	33	19
(ex. ETF)		-6,126	-33	34	-23	-29	35	-23
해외 주식형	27,019	-3,067	-86	-17	-19	-17	-15	-18
(ex. ETF)		-3,070	-86	-17	-19	-17	-15	-18
주식 혼합형	10,375	-1,485	-7	6	-9	-14	11	-6
채권 혼합형	18,852	809	34	4	1	15	17	-8
채권형	45,690	1,152	388	173	-6	333	50	-39
MMF	77,774	23,254	2,969	-2,104	-430	918	403	36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1/02(금)	11/05(월)	11/06(화)	11/07(수)	11/08(목)
한 국	12,523	281	973	190	-49	3	119	-109
대 만	1,805	61	882	-179	58	59	148	-62
인 도	18,443	342	643	77	76	43	-	-
인도네시아	1,773	-246	378	-88	-41	-54	-71	-
태국	1,591	43	536	49	17	-23	-17	-
남아공	-688	581	542	82	79	63	134	-
필리핀	2,016	43	43	-	17	19	9	-3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1년	11/01(목)	11/02(금)	11/05(월)	11/06(화)	11/07(수)	11/08(목)
회사채 (AA-)	4.21	3.29	3.30	3.32	3.30	3.30	3.28
회사채 (BBB-)	10.01	8.68	8.69	8.71	8.69	8.69	8.67
국고채 (3년)	3.34	2.77	2.78	2.80	2.78	2.78	2.76
국고채 (5년)	3.46	2.84	2.84	2.86	2.85	2.85	2.83
국고채 (10년)	3.79	2.96	2.97	2.99	2.99	2.99	2.96
미 국채 (10년)	1.88	1.69	1.70	1.72	1.75	1.69	-
일 국채 (10년)	0.99	0.78	0.78	0.78	0.76	0.76	-
원/달러	1,151.80	1,090.70	1,090.90	1,091.20	1,090.70	1,085.40	1,089.30
원/엔	1,492.00	1,367.00	1,355.00	1,359.00	1,359.13	1,355.56	1,364.00
엔/달러	77.24	79.84	80.54	80.31	80.25	80.07	79.91
달러/유로	1.29	1.29	1.28	1.27	1.28	1.28	1.27
DDR3 1Gb (1333MHz)	0.64	0.64	0.64	0.64	0.64	0.65	-
NAND Flash 16Gb (MLC)	2.81	1.97	1.97	1.96	1.95	1.95	-
CRB 지수	305.30	295.85	296.81	295.85	297.17	291.49	-
LME 지수	3,306.0	3,278.5	3,262.9	3,251.4	3,281.0	3,256.0	-
BDI	1,738	1,026	986	971	947	916	-
유가 (WTI, 달러/배럴)	98.83	86.24	84.75	85.73	88.71	84.44	-
금 (달러/온스)	1,566.80	1,719.10	1,675.00	1,683.20	1,691.00	1,714.0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KOSPI200	최근월물 1212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이론	마감	평균		증감	
11월 2일	251.04	251.70	0.80	0.66	0.81	169,354	105,378	-4,261
11월 5일	249.50	250.25	0.74	0.75	0.72	165,649	103,598	-1,780
11월 6일	252.30	252.90	0.73	0.60	0.63	184,283	104,533	935
11월 7일	253.70	254.05	0.71	0.35	0.55	325,532	101,376	-3,157
11월 8일	250.13	249.45	0.70	-0.68	0.36	252,299	97,319	-4,057

###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11월 2일	2,246	-899	-2,281	-3,355	890	113	52	-2
11월 5일	-2,874	1,798	1,391	1,865	-878	19	147	1
11월 6일	4,212	-4,962	141	-2,646	2,811	81	-138	-1
11월 7일	-1,664	608	1,506	-267	1,075	-78	-97	0
11월 8일	-5,282	3,843	1,157	1,383	-2,457	-44	427	2
누적포지션	-20,954	7,012	13,621	2,451	7,272	-859	-594	5,383

###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11월 2일	807	844	37	689	716	27	118	128	10	6,328	10,256
11월 5일	598	666	67	525	609	84	74	57	-17	6,338	10,245
11월 6일	623	658	36	560	592	32	63	66	3	6,108	10,000
11월 7일	807	697	-110	627	601	-26	179	96	-84	6,146	9,954
11월 8일	1,211	782	-429	877	665	-213	334	118	-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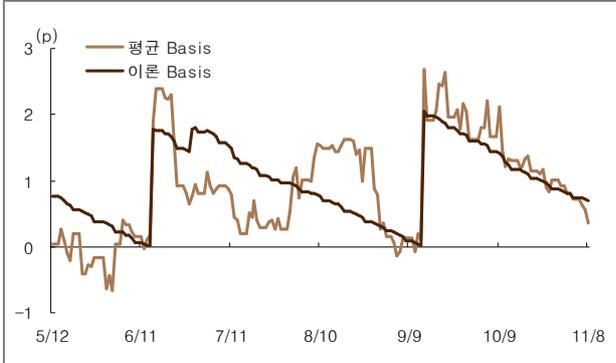
###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61.15	-44,635	585	0.01	265.00	15.00	35	-1,278	89.45
	52.18	-29,215	803	0.01	262.50	12.25	59	-1,477	5.00
	42.95	-40,084	17,090	0.01	260.00	9.95	791	-3,253	59.56
	33.39	-41,917	202,989	0.01	257.50	7.45	2,663	-5,551	47.26
	23.39	-30,081	398,553	0.01	255.00	4.95	18,005	-13,278	34.23
	12.68	-17,408	953,878	0.01	252.50	2.50	204,712	-19,793	22.69
	6.88	-17,388	824,344	0.33	250.00	0.32	942,509	-29,071	10.45
	5.00	-8,450	155,071	2.50	247.50	0.01	917,873	-35,867	14.08
	5.00	-2,547	8,858	5.00	245.00	0.01	424,437	-32,899	25.04
	5.00	-720	1,067	7.30	242.50	0.01	192,305	-28,663	35.54
	59.14	-507	85	10.20	240.00	0.01	10,424	-27,893	4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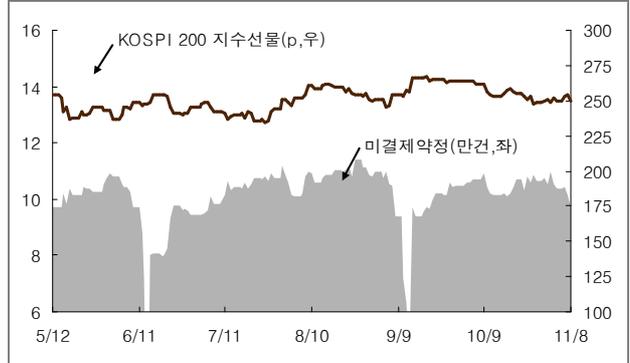
## ■ 주요 지표

###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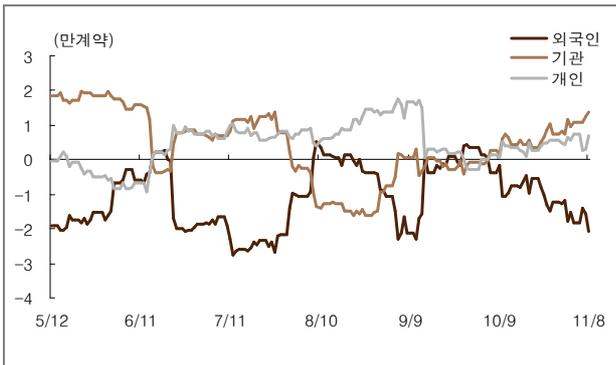
- 평균 Basis: 0.36 (전 거래일 대비 0.19 하락)
- 이론 Basis: 0.70

###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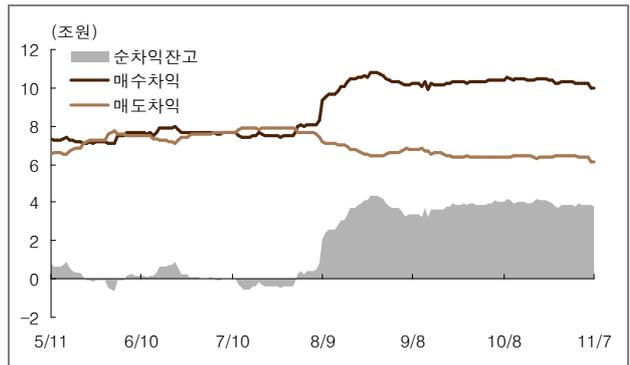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4,057 계약 감소한 97,319 계약
- 선물가격(249.45): 전 거래일 대비 4.60p 하락

###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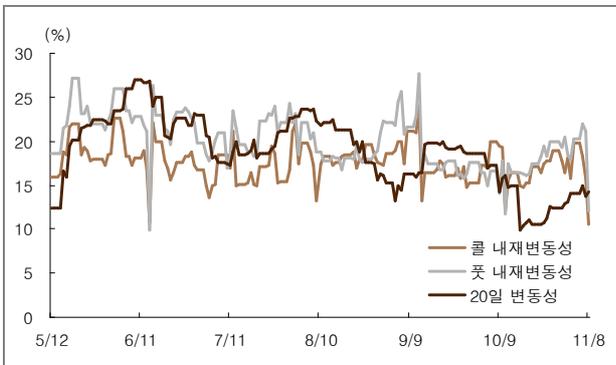
- 외국인: 5,282 계약 순매도
- 기관: 1,157 계약 순매수 / 개인: 3,843 계약 순매수

### 차익거래 잔고 추이



- 차익거래: 2,161 억원 순매도
- 비차익거래: 2,126 억원 순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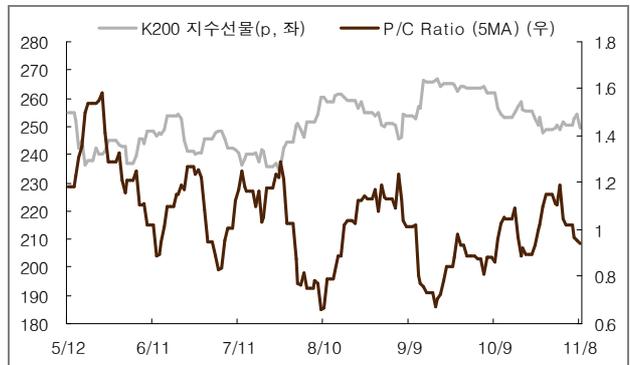
###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0.5% / 풋 12.1%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14.30%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2년 9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0.94 기록

#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9	30	31	1	2
韓> 11월 BSI 제조업 (70, n/a, 72) 11월 BSI 비제조업 (67, n/a, 67) 美> 9월 개인소득 MoM (0.4%, 0.4%, 0.1%) 9월 개인소비지수 MoM (0.8%, 0.6%, 0.5%) 10월 달라스 연준 제조업활동지수 (1.8, 0.0, -0.9) 실적발표> 韓 한전KPS, 풍산, 현대백화점	韓> 9월 경상수지 (\$6,066M, n/a, \$2,357M) 9월 상품수지 (\$5,643M, n/a, \$2,372M) 美> 8월 S&P/CS주택가격지수 MoM (0.49%, 0.50%, 0.44%) 日> 9월 실업률 (4.2%, 4.2%, 4.2%) 9월 산업생산 YoY 속보치 (-8.1%, -7.1%, -4.6%) 9월 자동차생산 YoY (-12.4%, n/a, 4.5%) BoJ 정책금리 결정 (0.10%, 0.10%, 0.10%)	韓> 9월 산업생산 YoY (0.7%, 1.0%, 0.3%) 9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MoM (-0.7%, n/a, -0.2%)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4.8%, n/a, -12.0%) 유럽> 9월 유로권 실업률 (11.6, 11.5%, 11.4%) 中> 9월 선행지수 (100.49, n/a, 99.63)	韓> 10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2.1%, 2.1%, 2.0%) 10월 수출 YoY (1.2%, -0.7%, -1.8%)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6.3만, 37.0만, 36.9만) 8월 ADP 취업자 변동 (15.8만, 13.1만, 16.2만) 10월 ISM 제조업 (51.7, 51.0, 51.5) 中> 10월 PMI 제조업 (50.2, 50.2, 49.8) 10월 HSBC PMI 제조업 (49.5, 49.1, 47.9)	美> 10월 실업률 (7.9%, 7.9%, 7.8%) 10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 (17.1만, 12.5만, 11.4만) 中> (11/3)10월 PMI 비제조업 (55.5, n/a, 53.7)
5	6	7	8	9
韓> 10월 외환보유액 (\$323.46B, n/a, \$322.0B) 美> 10월 ISM 비제조업 (54.2, 54.5, 55.1) 유럽> 11월 섹터스 투자자대지수 (-18.8, -21.0, -22.2) 中> 10월 HSBC PMI 서비스 (53.5, n/a, 54.3) (11/4-5)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멕시코시티) 실적발표> 韓 KT, 컴투스, 성광벤드, 한미약품, 한진해운 美 시스코, 서던, 타임워너케이블	美> 대통령 선거, 양원 의회 선거 호주> 호주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 (3.25%, 3.00%, 3.25%) 실적발표> 韓 SK텔레콤, 아시아나항공, 락앤락, 우주일렉트로닉스 美 익스프레스 스크립트 홀딩*, CVS 케어마크, 에머슨 일렉트릭, EOG 리소시스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5.0%, n/a, -4.8%) 9월 소비자신용지수 (\$11.365B, \$10.175B, \$18.123B) 유럽> 9월 유로권 소매판매 YoY (-0.8%, -0.8%, -1.3%) 그리스 긴축재정안 의회 표결 메르켈 유럽의회 연설 실적발표> 韓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엔씨소프트, 웅진코웨이, GS건설, 현대산업개발, 골프존, 셉티온, 인터파크 美 뉴스코퍼레이션*, 타임워너, 크래프트 푸드, 데번에너지, 메이시스	韓> 읍선만기일 9월 통화공급 M2 YoY (0.1%, n/a, 0.9%)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6.5만, 36.3만) 9월 무역수지 (n/a, -\$45.0B, -\$44.2B) 유럽> ECB 금리 공시 (n/a, 0.75%, 0.75%) BOE 금리 공시 (n/a, 0.50%, 0.50%) 中> (11/8-14) 제18차 전국대표회의 日> 9월 경상수지 YoY (68.7%, -52.7%, 4.2%) 실적발표> 韓 NHN, 아모레퍼시픽, SKC, 유켄스, 롯데쇼핑, 효성, 영원무역 美 쉐일*, 푸르덴셜 파이낸셜*, 듀크에너지	韓> 금통위 금리결정 (n/a, 2.75%, 2.75%) 10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n/a, n/a, 1.0%) 美> 10월 수입물가지수 YoY (n/a, -0.5%, -0.6%) 미시건대 소비자심리평가지수 속보치 (n/a, 83.0, 82.6) 中> 10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1.9%, 1.9%) 10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n/a, -2.7%, -3.6%) 10월 산업생산 YoY (n/a, 9.4%, 9.2%) 10월 소매판매 YoY (n/a, 14.4%, 14.2%) 日> 10월 통화량 M2 YoY (n/a, 2.4%, 2.4%) 실적발표> 韓 다음커뮤니케이션, 삼성생명 美 월트 디즈니
12	13	14	15	16
유럽> (11/11) 그리스 2013년 예산안 의회 표결 유로존, EU 재무장관회의 中> (11/10) 10월 무역수지 (11/10) 10월 수출 YoY (11/10) 10월 수입 YoY 10월 신규 위안 대출 (미확정) 10월 통화공급 M2 YoY(미확정) 日> 3분기 GDP QoQ 속보치 실적발표> 韓 현대미포조선	美> 10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10월 월간 재정수지 유럽> 독일 11월 ZEW 조사치 실적발표> 韓 게임빌 美 홈데포, TJX 컴퍼니	韓> 10월 실업률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10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10월 소매판매액지수 MoM 9월 기업재고 MoM FOMC 회의 의사록 공개 유럽> 9월 유로권 산업생산 MoM 中> 제18차 당대회 폐막 실적발표> 韓 한섬, 한국전력, LG전자 美 시스코 시스템즈	韓> 10월 수출물가지수 YoY 10월 수입물가지수 YoY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0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11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11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 유럽> 10월 유로권 CPI YoY 3분기 유로권 GDP YoY 속보치 中> 10월 실질 FDI (미확정) 실적발표> 美 월마트, 비아콤, 타겟	美> 10월 산업생산 YoY 유럽> 9월 유로권 무역수지 SA 10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3분기 GDP 속보치 실적발표> 美 델*, 갭*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이전치는 수정 값 미반영분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일)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